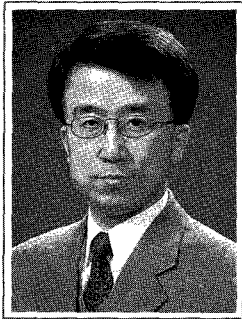




2003년 PNC 회의 및 ANS 하계 연차대회

장 호 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국제협력실장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총회

2003년도 태평양원자력협의회(PNC : Pacific Nuclear Council) 춘계 총회가 미국원자력학회(ANS : American Nuclear Society) 하계 연차 대회(Annual Meeting ; 6. 1~ 6. 5)와 연계하여 지난 6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San Diego)시의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

tion Center 에서 개최되었다.

PNC는 1985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PBNC :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때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여 처음에 태평양연안국원자력협력위원회(PBNCC)로 설립된 후 1988년 11월에 그 기능을 확대 조직하여 지금의 PNC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현재 PNC 회원 기관은 11개국 13개 기관으로 한국(원산), 미국(원자력학회), 캐나다(원자력학회 및 협회), 멕시코(원자력학회), 미국원자력학회 라틴아메리카지부(브라질에 소재), 호주(원자력협회), 중국(원자력학회), 대만(원자력학회), 일본(원산 및 원자력학회), 인도네시아(원자력학회), 러시아(원자력학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그 외 태국·말레이시아 등이 옵서버(Observer)로 되어있다.

PNC는 매년 2회(춘계·추계) 개최되고 있으며 PNC 상설 사무국인 미국원자력학회가 개최하는 하계 및 동계 연차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되거나 PNC가 주관하는 PBNC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되고 있다.

2003년 PNC 샌디에고 회의에는 각 회원국 대표 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대표로는 PNC 회원 기관인 한국원산의 방국진 사무총장과 PNC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던 한국과학기술원의 조남진 교수 및 필자가 참석하였다.

금년에는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급성중증호흡기중후군(SARS)의 영향으로 발병국인 중국·대만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회원국들이 불참하여 예년에 비해 참석률이 다소 저조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PNC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

으로 PNC 사무국 업무 및 재무 보고, PNC 산하 분과위원회(committee) 및 전문 그룹(task group)의 활동 및 연구 결과 보고, PNC 회원 영입 확대 활동 결과 보고, 국제 NGO로서 PNC 회장단의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가 계획, 차기 PBNC 대회(14차 및 15차) 준비 현황 및 16차 대회 유치 신청, 차기 PNC 부회장 및 회장 당선자(Vice President & President Elect) 선출 일정 등에 대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동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 기관으로 금년 가입 예정인 한국원자력학회(KNS)에 관한 소식을 다루었으며, 한국원자력학회의 가입으로 한국원산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도 회원 기관이 2개 기관이 됨으로써 일본 및 캐나다 등과 함께 비중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2004년 3월 21일~25일 기간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제14차 PBNC 대회의 준비 현황 및 각 회원 기관 대표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발표 논문 모집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논문 모집 일정을 보면 논문 개요(Abstract) 제출 기한은 2003년 8월 15일까지이고 본 논문(Full Paper) 제출 기한은 2003년 11월 3일까지이다.



2003 PNC 춘계 총회에서는 신규 회원 기관으로 금년 가입 예정인 한국원자력학회(KNS)에 관한 소식을 다루었으며, 한국원자력학회의 가입으로 한국원산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도 회원 기관이 2개 기관이 됨으로써 일본 및 캐나다 등과 함께 비중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논문 제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담당자인 미국원자력학회(American Nuclear Society)의 Ellen Leitschuh에게 문의하면 된다.(E-mail :eleitschuh@ans.org/ 전화 : +1-708-579-8253 / 팩스 : +1-708-352-6464

기술의 확대 무한 기회」라는 주제 하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여 개회 세션을 포함하여 총 61개 세션에서 23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관련 기관 및 학계에서 30여명이 참가하여 총 1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본 연차대회 기간 중에는 페로 및 사후 연료 관리, 리스크 관리, 원자력의 가속기 기술의 응용 등의 3개 Topical Meeting과 전문가 개발 워크숍이 별도로 개최되었다.

ANS 대회 개회 세션은 6월 2일 Golden Ballroom 에서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전 ANS 회장인 Edward Quinn씨(MDM Service Corp.)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현 ANS 회장인 Harold Ray씨의 환

2003년 미국원자력학회 하계 연차대회

미국원자력학회 하계 연차대회(2003 ANS Annual Meeting)는 6월 1일 오후 6시 개최 장소인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의 옥외인 Royal Palm Court 에서 개최된 환영 리셉션을 스타트로 시작되었다.

이번 ANS 연차대회는 「원자력



영사에 이어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 위원장인 Nils J. Diaz 박사를 비롯한 6명의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특별 강연이 실시되었다.

본 연차대회 첫 날인 6월 2일 저녁에는 한국 원산 주관으로 미국 현지 거주 인사를 포함한 한국측 참가자 25명이 함께 자리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ANS 연차대회의 한국측 참가자들 간 인적 및 정보 교류와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원산의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건의 및 제안을 위해 개최되었는데 이국 땅에서의 이러한 한국측 참가자들끼리의 모임은 각 참가자들의 사기 고취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원자력계의 발전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많은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본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원산의 방국진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내 원자력계 인사들을 외국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고 국내에서보다도 더 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일본의 경우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참가시 가능별로 역할 분담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회의 참가시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원산에 사전 통보하여 상

호 모임을 통하여 일본과 같이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방 사무총장은 또한 그간 우리나라 과학인들이 에너지의 안정 공급과 정보 기술(IT) 개발 및 벤처 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 등 산업 발전과 IMF 체제 극복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원전 기술 개발 자립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노력의 결과였으며 앞으로도 산·학·연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나라를 세계 기술 강국으로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춰 부강한 국가 건설과 국력 신장에 힘써주기를 당부하였다.

본 간담회에 참가자들은 한국원산이 주요 국제 회의 참가시 국내 참가자들의 단결과 인적 교류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이러한 구심점 역할을 지속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맺는 말

그간 침체 일로에 있었던 미국 원자력산업은 부시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원자력 발전의 이용 확대가 포함됨에 따라 원전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가 고무되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이 활

발히 추진되고 있는바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ANS 하계 연차대회에서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매년 ANS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되던 원자력 전시회(Expo)가 이번 대회에는 시행되지 않아 아직까지 미국 원자력 산업계의 경기는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였으며 대회 참가자들도 대부분이 장년층이어서 젊은 층들의 원자력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아직은 미약한 듯 보였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 6위의 원자력 국가답게 16편의 비교적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중요 현안 문제에 대한 패널 토론에 있어서는 토론자 명단에 국내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대회에서의 국내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 나라는 몇해 전 본 연차대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조남진 교수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ANS 최고 영예 회원인 Fellow에도 이창건 원자력위원 및 조남진 교수 등을 포함하여 3명이 올라갔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앞으로 본 연차대회에 기술 세션은 물론 패널 토론에도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원자력계의 합심된 노력을 기대해본다. ☞